

# “양돈산업 대화합 통해 양돈산업 발전 이끈다”

- 제16대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 취임 기자회견 개최
- 김동환 회장, “중점 3대 과제 해결에 역량 결집할 것”



▲김동환 본회 회장

(사)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이 지난 2월 28일 제2축산회관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6대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양돈업계의 대화합을 이루어 양돈협회가 명실공히 양돈업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양돈산업 대화합 ... 모든 양돈농가 협회 가입

김동환 회장은 향후 협회 추진 계획과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무엇보다도 양돈산업의 대화합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회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부회장과 도협의회장, 지부장들과 특정업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등 모든 구성원이 협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개방하는 한편,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들이 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양돈관련 기관과 단체, 학계 등 모든 양돈업계가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대화합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며 양돈업계 대화합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 ◆ 가축분뇨 해결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관해서도 “3년 임기동안 분뇨 처리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향후 3년간 가축분뇨 처리문제 해결을 정책에 최우선 순위로 두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정부 특단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이와 병행하여 공공처리시설 등을 활성화하고 분뇨처리 전문화를 기해 양돈농가에서는 돼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돼지 분뇨처리하는데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동시에 돼지분뇨 해양배출 수수료 완화를 위해서도 국제청과 환경부와 협의, 농가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 소모성 질환 극복... 시설개선 위해 정부 지원 재개 시급

김 회장은 소모성질환 해결 방안에 대해 “양돈장에서 소모성 질환은 양돈농가의 큰 걱정거리라며 이 질환은 환절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보조가 중단된 시설자금도 다시 재개토록 정부에 건의, 이를 통해 질환은 물론 항생제 잔류문제도 해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모성질환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관련연구기관과 전문가 등을 총동원하여 소모성질환을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한 생산자단체 주도의 정확한 질병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친환경 양돈장 모델 제시 및 실용적인 교육시스템 마련, 이전·신축 양돈장에 대한 시설비 지원 추진, 기존 양돈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비 지원 추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 국산돈육 차별화... 경쟁력 제고 노력

또 양돈자조금사업 운영에 대해 “자조금의 경우 생산자단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다”며 타 축종과 차별화된 자조금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자조금 사업에 주체자인 양돈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 자조금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등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육가공업체나 수입업체의 자조금 참여 여론이 있는데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양돈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중심의 양돈보다 전업농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산 돼지고기와 수입산 돈육의 차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김 회장은 “돼지고기의 안전성과 위생제고를 위해 HACCP과 브랜드 인증 등을 활성화하는데도 앞장서고 이에 부족한 농가에게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며 3년간의 추진계획과 행보를 밝혔다. **양돈**